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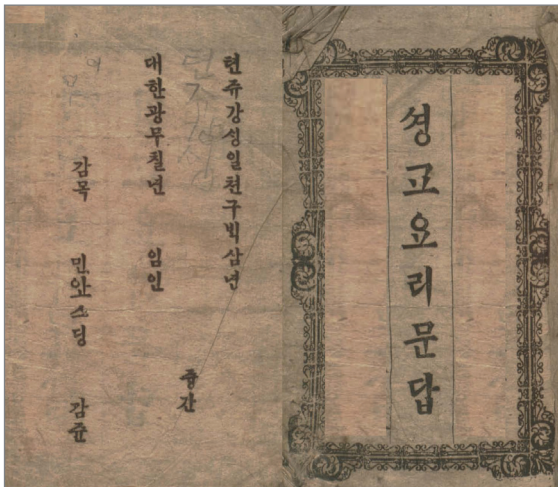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공식 교리문답서, 『성교요리문답』과 『천주교요리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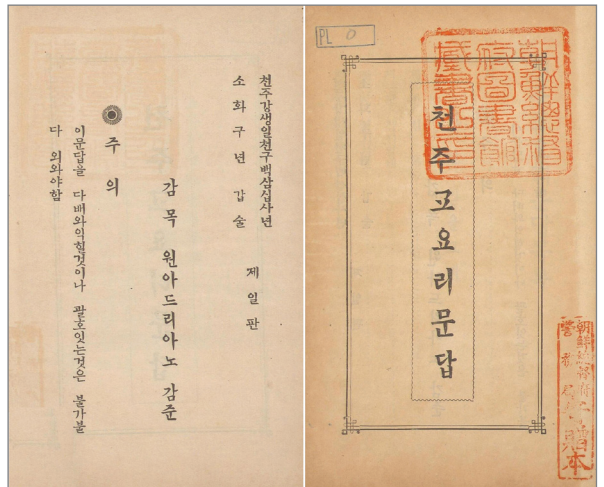
- 1926년 서울·대구·원산대목구에서 공인한 ‘개정판 『성교요리문답』’을 재확인하다 -

한국 천주교 최초의 공식 교리문답서는 1861년 조선대목구 인쇄소에서 간행된 목판본 『성교요리문답』(성교요리문답)입니다. ‘성교요리문답’은 여러 번 활판본으로 중간되었고, 1931년 조선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편찬된 『천주교요리문답』이 1934년에 간행될 때까지 70여 년 동안 공식 교리문답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공식 교리문답서 『천주교요리문답』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결정에 따라 1964년 구성된 ‘교리서 편찬 특별위원회’에서 편찬한 『가톨릭 교리서』가 1967년에 간행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리서』는 문답 형식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교리 해설 방식을 취했으므로, 한국 천주교사에서 공식 ‘교리문답서’는 『성교요리문답』과 『천주교요리문답』 2종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요리문답』(1934년) 이전에 『천주교요리(대문답)』(1925년)이 1926년 11월 15일 천주교회의 공식 문답으로 반포되었다는 논문[황규남, 「한국천주교의 교리서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23쪽, 29~30쪽]이 나왔고, 이에 따라 공식 교리문답서의 연혁이 『성교요리문답』 → 『천주교요리(대문답)』 → 『천주교요리문답』으로 인식되었습니다.[조광, 「진교절요(進教切要) 개회기 우리나라 교회의 핵심적 가르침」, 『경향잡지』 1529호(1995.08), 51쪽] 필자도 이 내용을 받아들여 『천주교요리(대문답)』를 공식 교리문답서로 서술했습니다.[이석원, 「천주교 서적과 지적 파장」, 『서학의 파장과 조선 유학의 대응』, 2, 한국국학진흥원, 2024, 157~158쪽] 그러나 필자가 최근에 교리문답서의 연혁을 다시 정리하면서 위의 내용이 오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교요리문답』(중간) 1903년 간행



『천주교요리문답』(제1판) 1934년 간행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 르장드르(Le Gendre, 崔昌根, 1866~1928) 신부가 3권 3책으로 편찬한 『천주교요리(대문답)』은 서울대목구장 뫼텔 주교의 감준을 받았지만, 한국천주교의 공식 문답서로 ‘공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식 교리문답서였던 『성교요리문답』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교리서였지 『성교요리문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천주교요리(대문답)』가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교리문답서였다’는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교리문답서의 연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천주교요리문답』(1934년) 간행 이전인 1926년 11월 15일에 천주교회의 공식 문답서로 반포된 서책이 실제 있었는데, 그것은 『천주교요리(대문답)』가 아니라 새로 수정된 『성교요리문답』, 즉 ‘성교요리문답의 개정판’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천주교사 관련 논저나 사전 항목,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정판 『성교요리문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요리(대문답)』가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교리문답서였다’는 전거로 잘못 인용된 『경향잡지』 기사[601호(1926.11.15), 481~483쪽]와 1926년 이후의 『성교요리문답』 판본[1927년, 1932년, 1934년, 1936년]을 비교·대조한 결과 1926년 11월 15일 반포된 ‘개정판 『성교요리문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번 호 지면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경향잡지』 ‘개정판 문답 반포’ - 『성교요리문답』의 견진성사 조목을 교체하고 ‘부록’을 붙이다

『경향잡지』 601호에는 1926년 11월 15일자로 경성감목[서울대목구] 민[뫼텔] 주교, 대구감목[대구대목구] 안[드망즈] 주교, 원산감목[원산대목구] 신[사우어] 주교의 명의로 나온 ‘개정판 문답’ 반포문이 실려 있습니다.

전부터 사용하던 『성교요리문답』에는 빠진 도리가 많아 완전치 못한 고로 이에 그 결한 것을 기위 개정판 문답을 모든 교우들에게 반포하노라. 그러나 성세·고해·성체 3본 문답은 고친 것이 없어서 온전히 전과 같고 다만 ‘견진문답’은 예전 것을 없이 하고 『진교절요』(노인문답)에 있는 견진문답을 두었으며, 또 이전 요리문답에 구비치 못한 것을 집기 위하여 부록 45조목을 덧붙였노라.

반포문에 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성교요리문답』을 없애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여 개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교요리문답』은 그 별칭인 ‘사본요리’(四本要理)에서 보듯이 ‘영세·고해·성체·견진’ 4개 성사의 문답[전체 154개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앞의 3개 성사의 문답은 온전히 놔두고, 마지막 견진성사 문답 23개를 없애는 대신 1883년 블랑 주교가 감준·간행한 『진교절요』(노인문답)[노인 예비자를 위해 핵심 교리와 기도문, 문답을 수록함. 문답은 영세·고해·성체·견진성사를 모두 포함해 12개 조목으로 구성됨]에 있는 견진문답 5개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성교요리문답』에 없었던 핵심 기본교리, 즉 십계[십계명], 사규[四規, 신자가 지켜야 할 4가지 규정], 덕행(德行), 죄, 성총(聖寵, 하나님의 은혜), 기구(祈求, 기도), 칠성사(7개 성사, 사본 외에 신품·혼배·종부 포함)와 관련된 45개 조목을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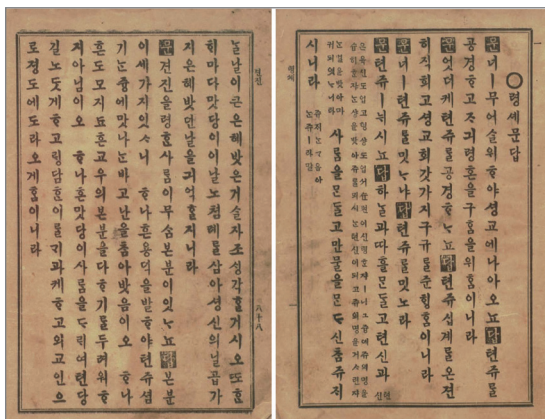
새로 개정된 『성교요리문답』은 기존의 영세·고해·성체 삼본의 131개 조목과 『진교절요』에서 가져온 견진문답 5개 조목[사본 문답 합 136조목], 부록 45개 조목을 합쳐서 모두 181개 조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의 154개 조목보다 수치상 27개 조목이 늘어난 셈입니다. 기존의 『성교요리문답』 조목에는 일련번호가 없었지만, 개정판 『성교요리문답』 조목에는 ‘영세문답’의 1번부터 ‘부록’ 맨마지막의

181번까지 아라비아숫자가 일일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판본(1927년, 1932년, 1934년, 1936년)에서 표지나 판권에 ‘개정’판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나 서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책 표지나 판권만 봐서는 기존의 『성교요리문답』과 개정판을 바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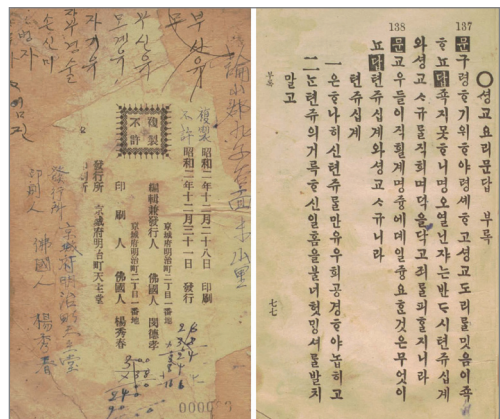
체제	『성교요리문답』 (1861년본)	개정판 『성교요리문답』 (1926년 반포)	
전체 조목	154	181	
영세문답	70	70 [1~70번]	
고해문답	37	37 [71~107번]	*기존 판본과 동일
성체문답	24	24 [108~131번]	
견진문답	23	5 [132~136번]	* 『진교절요』 견진 조목으로 대체
부록	없음	45 [137~181번]	* 새로 추가[핵심 교리]
비고	일련번호 없음 목차, 서문 없음	일련번호(아라비아숫자) 명기 목차, 서문, ‘개정’판 관련 정보가 없음	

한편, 반포문에 의하면 “수년 전에 교황 대사께서 조선에 오시어 경성에서 조선 모든 주교와 함께 공의하실 때에 조선에서 쓰는 『성교요리문답』의 완전치 못함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신지라”로 나옵니다. 개정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밝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교황 대사는 1920년 10~11월에 걸쳐 조선 [경성대목구, 대구대목구, 베네딕도회의 혜화동 수도원]을 방문한 교황사절 푸마소니 비온디(Fumasoni Biondi, 1872~1960) 주교[초대 주일 교황사절, 1919~1921년 재직, 1933년 추기경 임명을 가리킵니다. 뮌헨 주교의 일기에 의하면, 11월 8~9일에 뮌헨 주교는 교황사절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뮌헨 주교 일기 6』, 한국교회사연구소, 395~403쪽] 이때 교리문답서 『성교요리문답』의 개정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당시 한국 천주교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서울·대구·원산대목구장의 주교들은 개정된 『성교요리문답』을 반포하면서 ① 세 교구[대목구]의 공식 문답서를 예비자와 아이들, 문답을 익히는 모든 이들이 배워야 하고, 교구 내 모든 남학교와 여학교에서도 이 문답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② 기존의 문답을 배운 신자들은 새롭게 부록을 배워 외워야 하고[나이가 너무 많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본당 신부에게 관면을 얻은 이는 제외], ③ 견진성사를 예비하는 이들은 ‘큰 견진문답’[예전 문답, 23조목]을 배우거나 ‘작은 견진문답’[개정 문답, 5개 조목]을 배우거나 마음대로 하되 예전 문답을 다 배우지 않은 이는 개정된 문답을 배우도록 하고, 문답을 ‘참고’(察考, 시험)할 때에도 두 가지 문답 중 마음대로 외우되 기존 문답을 얼마만 아는 이는 개정된 문답만 외우도록 자세히 지시했습니다.



『성교요리문답』(1922년) 조목(처음과 마지막)



『성교요리문답』(1927년, 개정판) 부록과 판권

1934년 공식 교리문답서 『천주교요리문답』과 노인 예비자 교리서 『로인문답』의 간행

개정판 『성교요리문답』은 1926년 11월 15일 이후 공식 교리문답서로서 한국천주교회 내에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교리와 관련된 45조목의 부록을 첨가했지만, 여전히 체계적이고 온전한 의미의 교리서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한편, 1925년에 간행된 『천주교요리(대문답)』은 『성교요리문답』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3권 3책으로 부피가 너무 크고 설명도 장황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교구[조선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1931년 개최된 조선 주교회의에서는 앞서 나온 문답서의 내용을 개혁하고 아울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 교리문답서를 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문답개정 5교구위원회’가 결성되고 몇년 간의 노력 끝에 1934년 9월 3일, 1권으로 된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敎要理問答)을 간행·반포했습니다.

『천주교요리문답』은 1925년 『천주교요리(대문답)』의 체제에 따라 전체 3편(1편 믿을 교리, 2편 지킬 계명, 3편 성찬을 얻는 방법, 부록-대인(大人) 임종대세 예비 및 고명규식(告明規式))으로 구성되었고, 『성교요리문답』의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16장 320개 조목이 수록되었습니다. 1861년본 『성교요리문답』의 154조목, 1926년본 개정판 『성교요리문답』의 181조목에 비해 조목의 수치와 내용이 증가했습니다. 예전 문답서인 『성교요리문답』에서는 대인 세례 예비자라면 견진문답을 제외한 모든 조목을 외워야 했는데 새 문답서인 『천주교요리문답』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고, 반드시 외워야 할 조목과 배워서 알아야 할 조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사본문답’에 해당되는 내용은 『천주교요리문답』 제3편 제3장 성사(203~320조목) 중 제1절 성세(211~223조목)[13개 조목, 그중 암기 필수는 5개 조목], 제2절 견진(224~235조목)[12개 조목, 그중 암기 필수는 4개 조목], 제3절 고해(236~279조목)[44개 조목, 그중 암기 필수는 19개 조목], 제4절 성체(280~301조목)[22개 조목, 그중 암기 필수는 13개 조목]에 나옵니다. 사본문답만 골라보면 총 91개 조목이 되고 그중 반드시 암기해야 할 조목은 총 41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요리문답』은 『성교요리문답』(개정판)을 대신하는 공식 교리문답서로서 간행되었고, 1967년 『가톨릭 기도서』 간행 이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개정판 『성교요리문답』이 『천주교요리문답』 반포 이후에도 계속 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1936년 2월 9일 간행본 확인]. 이 책이 계속 간행된 배경에는 현실적인 고려, 즉 ‘참고’할 때 신자들이 외워야 할 조목이 흩어져 있는 『천주교요리문답』보다 개정판 『성교요리문답』이 더 유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한편 1934년 『천주교요리문답』 간행과 동시에 노인 예비자들을 위한 교리서 『로인문답(노인문답)』이 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노인 문답서인 『진교절요』의 체제를 이어받으면서 새롭게 개편된 기도서 『천주교십이단』과 교리문답서 『천주교요리문답』의 내용을 『로인문답』에 반영했습니다. 봉헌경을 제외한 십이단 기도 중 11종 기도문과 『천주교요리문답』에서 발췌한 76개 조목(대조 도표 수록)을 실었습니다. 사본 문답은 44~68조목으로, 성세(44~46조목)[3개 조목, 그중 암기 필수 1개], 견진(47~49조목)[3개 조목, 그중 암기 필수는 2개], 고해(50~61조목)[12개 조목, 그중 암기 필수는 6개], 성체(62~68조목)[7개 조목, 그중 암기 필수는 4개]가 나옵니다. 사본 문답은 총 25개 조목이 되고 그중 반드시 암기해야 할 조목은 총 13개가 됩니다.

1934년 『천주교요리문답』과 『로인문답』의 간행을 통해 당시 한국천주교회가 기존의 『성교요리문답』이나 『진교절요』보다 체계적으로 교리문답서를 편찬하고 예비자 교육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